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 예술로 화답하다

1980년 오월의 정신을 계승하며 당대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오월미술제’가 올해는 ‘생물민주주의(Democracy as a Living Thing)’를 앞세운 예술 현장을 선보인다.

(사)민족미술인협회 광주지회와 은암미술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5 오월미술제가 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은암미술관과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오월전과 포럼, 작가 토크와 함께 올해는 ‘디지털연대전시’까지 병행되는 점이 특징이다.

김신은주 오월미술제 감독은 ‘생물민주주의’에 대해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예술로 호흡하는 장으로 만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1980년 광주의 대동세상과 내란의 겨울동안 윤석열을 탄핵한 우리의 집합적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를 고정된 제도나 형식이 아니라 서로 연결돼 새롭게 신체를 생성하며 공생 진화하는 생명 활동으로 상상했다”고 설명했다.

오월제에 참여한 33명의 작가는, 민주주의가



홍성담 작 ‘개사과’

오월미술제 ‘생물 민주주의’ 전시 29일까지 은암미술관·무등갤러리 작가 33명 회화 설치 영상 등 선포 12·3 내란 맞선 민주주의 재구성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 움직이며 진화하는지를 예술적으로 탐구하고, 그 생명력과 이 시대의 과제를 회화, 설치, 영상, 사운드, 애니메이션, 퍼포먼스,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여준다.

은암미술관에서 펼쳐지는 ‘생물 민주주의의 선언’ 전시는 12·3 내란과 이에 맞선 민주주의의 재구성 과정을 배경으로 1980년 5·18민중항쟁과 현재를 연결한다. 참여작가는 김광례 김병택 김미련 김우성 김희련 박성완 박진희 박철우 박태규 손향옥 성효숙 신동석 아이노아 마르티네즈 양동규 이정기 전승일 전진경 정만영 정희승 최재덕 현우정으로 총 21명이다.

정만영 작가의 ‘그릴 밥’은 작가가 전국을 돌며 채집한 자연의 소리들을 법전에 들려주는 사운드 설치작품이다. 박태규 작가의 ‘파면불꽃 2025’는 내란 책임자를 향해 맹렬히 타오르는 민주주의 불꽃을 강렬하게 보여준다.



정만영 작 ‘그릴 밥’

무등갤러리에서 열리는 ‘해방하는 신체’ 전시는 광복 80주년을 주제로, 일제의 폭압에 대한 항해 해방을 이루고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민중의 자유와 생명을 향한 힘을 보여준다. 참여작가는 김경화 김화순 노주인 문서현 박재열 방정아 서지연 윤은숙 이도근 이상호 최대주 홍성담으로 총 12명이다.

광주시립미술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문가 초청 포럼은 오는 16일 오후 1시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예술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꿈꾸고 구성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예술의 역할을 탐구하는 자리다. 유기쁨(애니미즘과 현대세계 저자),



박태규 작 ‘파면불꽃 2025’

임지연 (홍익대 미학과 초빙교수), 양진호(철학자, 인문학교육연구소), 신용철(시골큐레이터)의 발제와 홍윤리(광주시립미술관 학예사) 김서라(미학연구원, 광주모더니즘), 정희석(광주시립미술관 연구사), 윤은숙(작가)의 토론이 펼쳐진다. 포럼에 이어서 광주와 타 지역의 작가 5명이 각자의 예술세계와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토크가 진행된다.

5·18 45주년 특별전으로 새로 기획된 ‘디지털연대전시 Pulse:우리’는 기존의 연대전시를 온라인(https://mayartfestival.com/)으로 확장해 시공간을 넘어선 예술의 연대를 살펴볼 수 있다.

최진화 기자

중장년 위한 계절 콘서트…“감동 나누세요”

‘마음가득 채우는 봄밤’ 개최
13일 땅콩나무문화예술협회

지역 문화예술단체 땅콩나무문화예술협회가 오는 13일 오후 7시 협회(광주시 서구 금부로 101)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네 번째 계절 콘서트 ‘마음가득 채우는 봄밤’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0여 년간 캘리그라피를 함께 배우고 동아리 활동을 이어온 회원들의 재능기부, 피아노와 민요 공연, 감동을 나누는 짧은 강연과 선물 추첨 이벤트 등으로 꾸며진다.

감동을 나누는 강연은 양성현 작가와 선영란 학예연구사를 초청해 문학과 역사 이야기를 펼치며, 삶의 위로와 영감을 전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시인 두보의 시 구절 ‘好雨知時節 當春乃發生(좋은 비는 시절을 알고 봄이 오면 내린다네)’에서 영감을 받았다.

시인이 어느 봄날 저녁, 조용히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반가운 마음을 시로 표현했듯, 우리 삶에도 강풍이 아닌 적절한 ‘좋은 비’처럼 따뜻한 인연이 제때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양중희 땅콩나무문화예술협회 대표는 “이번 행사는 예술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참여자들의 지난 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도 준비돼 있어 감동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콘서트는 약 20여 명이 참여하며, 지역 주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 최진화 기자

버선에 담은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

한국화가 류현자 개인전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우리네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을 살았다. 환한 달빛 아래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 놓고 간절한 소망을 빌던 어머니의 모습에서 마음의 안식과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엿볼 수 있다. 궁핍한 삶 속에서도 풍요를 바랐던 어머니들의 소박한 염원과 애환이 스며 있는 물건, 버선을 통해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표현한 회화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화가 류현자 개인전 ‘사모곡-비우면서 채우는...’이다.

류현자 작가는 전통 한지와 오방색을 활용해 한국의 조형미를 탐구하는 작업을 지속해왔다. 특히 ‘사모곡’ 연작시리즈를 통해 가족의 안녕을 염원하는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버선의 형태로 표현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풍을 구축했다.

이번 29번째 개인전에서는 유려한 버선의 곡선미와 함께 연꽃, 목련, 보름달을 접목한 회화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류현자 작가는 버선의 조형미를 절제된 선과 구조적 공간감으로 풀어내며 한국 고유의 정서를 담아낸다. 더불어 작품 속 목련과 연꽃은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요소로, 봄을



류현자 작 ‘사모곡-달빛아리랑’

알리는 목련은 어머니의 찬란했던 젊은 시절을, 진흙 속에서도 고고하게 피어나는 연꽃은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을 의미한다.

한평생 희생적인 삶을 살아온 어머니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너울지는 오방색 물결로 표현했으며, 화면 위의 선들이 유기적으로 얹혀 경쾌한 울동감을 자아낸다. 섬세한 필치와 강렬한 색채로 어우러진 그의 작품은 따뜻한 기운과 활기를 불어넣는다.

류현자 작가는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및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현재까지 서울, 광주, 담양 등에서 개인전 28회를 가졌으며, 초대전 및 단체전 500여 회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시는 6월 1일까지 열린다. 최진화 기자

기사 제보 받습니다. 전남매일 독자와 함께 정직한 신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내실 곳 ▶ jndnnews@naver.com



그린비아
SINCE 1991

**2025 새해에는
건강한 영양습관
그린비아**

영양 보충을 통한 일상 속의
변함 없는 당뇨 관리
그린비아 당 케어

균형 잡힌 영양 습관으로
매일 아침을 든든하게!
그린비아 영양 케어

암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을
글고루 갖춘 맞춤영양식
그린비아 캔서 케어

그린비아 모델 배우 임주환/양미경/유선

주 문 처 | 전국 어디서나 1577-0426 쇼핑 트러스트 www.edaymall.com | 문 의 | 고객센터 080-930-8888, (02)553-8888 www.vegemil.co.kr
 ● 서울·경기 : 동부영업소 (031)592-6907 · 북부영업소 (031)861-3782 · 남부영업소 (031)283-8581 · 서부영업소 (032)514-2315 ● 강원영업소 (033)764-8801 ● 충청영업소 (042)623-8601 ● 전북영업소 (063)214-5731 ● 전남영업소 (062)941-5001 ● 경북영업소 (053)559-3441 ● 경남영업소 (055)231-8581 ● 광주영업소 (054)751-8331 ● 부산영업소 (051)204-8581

-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